

1910~1920년대 인문학 양상과 발전(3)

게슈탈트 이론 vs 시카고학파



로버트 파크

인문학적 시대배경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둘러싼 갈등과 경제적 마찰 속에 제1차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8백만 명이 숨졌고, 20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 백 만 명의 고아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후유증 탓에 각 국가들은 평화적 욕구와 증오심이 엇갈렸다. 독일에서는 짜르 제국에 반발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에 의한 권력의 쟁취가 그것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변혁의 방법론을 놓고서 서로 분열했으며, 1919년 독일 스파르타키스트(인터내셔널리스트)들의 봉기 실패처럼 몇 차례의 혁명 시도가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한다. 포드 자동차가 1913년 해외(영국)에 최초의 조립라인을 설치해 다국적 기업의 면모를 보여준다. 1914~1919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총소득(GNP)은 4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갑절이나 뛰었다.



파크와 버제스

“인식하는 것, 그것은 형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Christian von Ehrenfels)는 1890년 멜로디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밝혔다.

“만일 누가 그 멜로디를 인식하거나 인정하거나, 또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 멜로디를 이루는 각 음표를 배웠거나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 멜로디를 구성하는 각 음표들간의 조화, 즉 구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멜로디는 똑같은데 악보를 다른 음조로 이조(移調)하면서 음표를 바꿀 수도 있다.”

멜로디의 형태를 분석한 에렌펠스는 지각에 대한 원자적 분석에 반대하여 게슈탈트 이론(Gestalttheorie), 즉 형태심리학의 우위성을 처음으로 주장해 당시 학계에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게슈탈트 이론은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1912년에 외현운동에 관한 베르타이어(Max Wertheimer)의 논문으로 부각된 형태심리학은 코프카(Kurt Koffka)와 쾰러(Wolfgang Kohler)에 의해 발전되었다. 외현운동이란 불빛이 일정한 빈도로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생기게 되는 파이현상으로서 그 불빛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운동지각을 의미한다. 그들은 현상적 경험이 감각적인 요소로부터 생겨나지만 이것들을 요소로 분석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태심리학은 20세기 초 심리학계를 지배한 기존 정신물리학이 인식, 기억, 계산 등 모든 정신적인 행위들을 반사, 감각, 이미지 등의 관계로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형태주의에서 유기체는 하나 하나의 자극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형태로 모여진 전체를 지각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선 있는 그대로의 정신적 사상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 대단위적, 주관적 인식론으로 연구한다.

또 형태심리학에서는 장 이론의 개념을 심리학에 적용시켜 역동적인 상호관련 체계



글_성일권 정치학 박사

●이 글을 쓴 성일권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파리8대학에서 정치학 예비박사(DEA)를 마친 뒤 유럽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번역서로 《그들 안의 오리엔탈리즘》(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진보와 그 적들》(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등이 있다.

로서의 전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았다. 즉, 인간이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통합된 전체로서의 장이며, 이를 자극-반응의 단위와 같은 개개의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식이었다.

행태심리학을 심화시킨 W. 켈러는 원숭이의 학습 및 문제 해결과정을 공부했다. 그는 원숭이의 학습이 초기에는 모색과 시도, 실수에 의해 이뤄지며, 특히 학습의 주제가 메커니즘 전체의 논리를 내포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 그런데 일련의 행동들을 기억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모든 것을 그 자체로서 이해해야 하며, 그 뒤를 이어 해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할 줄 알아야 한다. 행태심리학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학자들은 전체적인 지각과 분석적인 지각 사이의 논쟁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언제부터, 왜 '좋은 형태'를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행태심리학은 나치 치하를 피해 미국에 망명한 레윈(Kurt Lewin)의 '심리학적 장 이론'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 했으나 점차 학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대학에 최초로 사회학과가 설립됐다. 전쟁의 상흔을 앓고 있던 유럽의 도시들과는 달리, 시카고는 성장을 거듭해 마천루가 하늘을 뒤덮고, 외국의 이민자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카고 학파의 선두주자 중 한명인 윌리엄 토머스(William Thomas)는 시카고라는 공동체와 도시민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대의 도시는 전통적인 도덕적·사회적 기준의 쇠약, 나아가 사회적 탈조직의 논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학파의 창시자격인 로버트 파크(Robert Park)는 도시의 중심에 사회적 탈조직 과정과 항상 불안정한 재조직화 과정 사이의 균형을 규명하려 했다. 그가 도시생태학이라고 명명한 것은 도시 환경과 이 환경을 활기 있게 만드는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해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시카고학파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현대 개인의 새로운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주변인'이 그 것이다. 도시는 현대성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최적의 공연장이 되었다.

파크와 어네스트 버제스(E. Burgess)는 공동연구를 통해 시카고의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상이한 지역으로 분화되어 거주하며, 빈곤, 범죄, 생활양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1921, *The City*). 그들은 동심원지대모형을 통해 도시가 어떻게 침입, 경쟁, 지배, 분화와 같은 생태학적 과정들에 의해 '자연지역'(natural area)으로 변하고, 각각의 지역들은 또 어떻게 민족성, 인종, 사회계층으로 분화되며, 독특한 언어, 전통, 그리고 생활양식을 가진 세계를 구성하는지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파크는 지역공동체를 '하위 사회적'과 '사회적'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눠 설명했다. 하위사회적 차원은 인구 구성이 공간과 기타 자원에 대한 경쟁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경쟁은 생태학적인 것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사회적 차원은 협동, 조직, 문화 등 사회과정들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보다 인간적이며 문명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크는 칼 맑스가 생산양식과 같은 사회의 하부구조가 이데올로기, 종교, 정치와 같은 사회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과 같이 생태학적 현상들이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 내에서의 사회집단들간의 관계의 하부구조를 형성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는 사람들도 시공간에서 최적의 적소(niche)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인들간의 장소에 대한 자유경쟁은 장소의 특정위치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와 서로 경쟁하는 장소 사용자들간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때 장소의 가격에 의해 최선의 장소가 최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인간 거주지의 최적의 서열화인데, 이러한 자원배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나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시 내에서의 장소간 차이처럼 도시간 성장의 차이는 도시의 물리적 장점들, 생태학적 우위에 의해 생겨난다고 시카고학파 학자들은 생각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깊은 항구가 있고 유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는 미국의 중앙에 자리한 까닭에 시장과 원자재에 쉽게 접근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카고학파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자칫 생물학적 인종우열론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경계하면서 인종간 차이의 집단 구성 또는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파크의 주장을 '자동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악순환은 머튼의 말을 빌리면 '자동실현적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한 흑인 아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